◆ 卷頭言

「口訣硏究」의 創刊에 붙여

南 豊 鉉

1.

「口訣硏究」 創刊號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큰 기쁨을 맞이하여 이제까지 구결연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들을 정리함으로써 축하의 뜻을 새롭게 하여 보고자 한다.

歷史硏究의 자료가 上代로 올라갈수록 희소해지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연구분야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국어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국어사의 연구 자료는 訓民正音의 創制 이후에는 비교적 많은 양이 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음소문자로 기록된 것이어서 우리말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국어학계에서는 1950년대 이후 근 30년간 15·6 세기의 한글자료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비하여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사 자료는 우선 양적으로 극히 빈약하다. 전해 오는 鄕歌가 悼二將歌를 합하여도 26수에 불과하고 삼국시대부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의 吏讀가 겨우 100종을 넘을까 말까 하는 양이 단편적으로 전한다. 이밖에 고유명사를 비롯한 어휘표기 자료들과 외국인들이 기록한 자료들이 있지만 이 모두를 합하여도 이 시대의 言語相을 밝히기에는 그 양이 너무도 빈약하다. 거기다가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粗雜하고 難解하여 해독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리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연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관념까지 갖기도 하였었다.

그러다가 1975년에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이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구결은 漢文에 吐를 달아 우리말로 새겨 읽도록 한 것이어서 종래의 順讀口訣과는 전연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釋讀口訣의 발굴은 훈민정

음 이전의 국어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 이후 釋讀口訣 資料는 계속 발굴되어 均如의 釋華嚴經敎分記, 瑜伽師地論 卷20, 新譯華嚴經 卷14, 金光明經 卷4의 釋讀口訣이 공개되어 있고 華嚴經疏의 석독구결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자료들은 이제까지 알려져 있던 훈민정음 이전의 借字表記의 全資料보다도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다. 또 이 자료는 내용이 이미 알려진 經典을 우리말로 새겨 읽은 것이기 때문에 그 吐의 기능을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말들의 기능도 함께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 연구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2.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이 國語學的으로나 文化史的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선 이 구결의 토가 보여 주는 기능이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능의 眞否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토를 표기한 글자는 新羅時代부터 발달된 것으로 이는 正字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쓴 略體字이다. 이 字體는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온 것이므로 그 軌跡을 추적하여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야 갖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원형을 증명할 만한 기초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쓰인 자형 가운데는 그 正字가 무엇인지, 어떤 음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지금도 전연 짐작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발굴과 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이 釋讀口訣이 나타내는 언어의 연대는 12세기 전후로 추정되는 만큼 이 자료가 보여 주는 문법은 15세기 국어의 문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 문법을 증명하자면 15·6세기 국어의 문법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하지만 이것은 3백여년의 時差를 갖는 두 언어를 연결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그 사이를 메꾸어 주는

자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15세기 국어와 釋讀口訣을 연결하는 작업도 되지만 그 결과는 고려시대 국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釋讀口訣의 출현으로 당면한 문제는 당시까지의 국어학이 고려시대의 국어를 거의 연구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들어내 준 것이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이러한 수준의 고려시대 국어의 연구로 향가를 해독한다고 한 것이 얼마나 감상적인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향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몇몇 연구자가 이 방면의 자료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자료는 15세기 이전의 문헌에 기록된 것이므로 그 문헌은 文化財에 해당되는 貴重本들이다. 여기에 구결의 토는 墨書나 朱書로 기록되어 있다. 이 귀중본들은 열람하기도 힘들거니와 그 속에서 구결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검토하여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구결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15세기 이전의 국어를 반영하는 구결임이 확인되어도 이를 연구할 수 있도록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일도 쉽지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所藏者들이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복사나 사진으로 인출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보면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楞嚴經 口訣을 비롯하여 15세기 전반기의 자료들만 하여도 3·40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이 방면의 연구를 지향하는 이들이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3.

현재 이 자료들은 15세기 이전의 국어문법을 밝히는 데 공헌을 하였고 高麗時代 釋讀口訣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밝히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 문헌에 쓰인 구결을 소화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수집된 자료들일지라도 이들을 몇몇 연구자들만이 소화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은 편이다. 또 앞으로도 구결자료는 계속 발굴될 것이다. 구결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훈민정음

이후의 자료도 국어사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결은 무한히 많은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도 않았거나 연구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구결의 양은 현재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아서 이 방면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결은 차자표기법의 母胎가 된다. 口訣과 鄕札 그리고 吏讀는 각기 개별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대를 가지고 발달한 것이다. 이 유대를 갖도록 연결지어 주는 것이 바로 구결이다. 이 사실은 이들 표기법의 구조를 고찰하여 보면 쉽게 이해된다. 口訣과 鄕札 그리고 吏讀의 表記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향찰과 이두의 표기법에 구결의 토가 應用된 결과인 것이다. 구결의 토가 향찰과 이두에 응용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어서 구결표기가 시대에 따라 바뀌면 향찰의 표기도 그에 따라 바뀌게 된다. 이두의 경우는 보수성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늦긴 하지만 결국 구결의 토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구결은 그 자체의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鄕歌와 吏讀의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고려시대 국어뿐만 아니라 고대국어의 연구를 위해서도 큰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는 어느 개인의 노력보다는 여러 사람의 공동연구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1987년 겨울 향찰, 이두, 구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口訣硏究會를 만들게 되었다. 이 연구회는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한번씩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여 1泊2日 동안 발표와 아울러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 새로이 발굴된 자료는 앞으로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편 1990년부터는 구결연구회 회원들이 매월 한번씩 모여 구결자료를 강독하여 오고 있다. 첫번째 강독 자료로 선택된 것이 宋成文本과 祇林寺本

楞嚴經 口訣이었고 1994년부터는 新譯華嚴經 卷14의 釋讀口訣이었다. 이어서 1996년부터는 金光明經 卷3의 석독구결을 읽어나갈 계획으로 있다.

口訣은 본래 경전의 연구자가 경전을 읽어가면서 그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조사와 어미들, 즉 토를 그 句讀에 해당하는 곳에 기입하여 넣은 것이다. 토는 경전의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高僧이나 學者들이 강독하거나 기입한 것을 그 제자나 후대인들이 옮겨 적고 그를 토대로 해석하면서 경전의 내용을 파악하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토도 그에 맞는 말로 바뀐다. 또 같은 경전의 토도 學派나 高僧에 따라 여러 종류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같은 경전의 여러 구결을 대조하면 같은 말이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달리 표현된 것들이 들어나서 언어의 발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전은 깊은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면 그 안에 담긴 언어의 기능도 잘못 파악하게 된다. 또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구결은 그 토가 15세기 국어의 문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읽고 토론하여 극복하여 보자는 것이 이 독회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口訣은 비단 국어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인들이 經典을 硏究하고 解釋해 온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의 연구를 통하여 각 시대의 경전 해석의 결과가 밝혀지면 우리 나라 精神文化의 發達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구결의 연구는 우리 문화사의 뿌리를 밝히고 점점 편협해져 가는 현대인의 傳統文化에 대한 眼目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釋讀口訣은 우리나라의 古代 漢文讀法이 日本의 漢文讀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여 주기도 한다. 일본은 中古時代부터 한문에 우리말의 토에 해당하는 訓點을 표시하여 이를 자기말로 새기어 읽어 왔는데 이러한 방법을 그들은 漢文의 訓讀法이라 한다. 현재도 일본은 한문의 독법에 이 訓讀法이 주가 되어 있고 우리와 같은 順讀口訣은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順

讀口訣은 매우 발달된 漢文의 讀法으로 釋讀口訣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현재 이것은 고려 중기부터 발달한 것으로 믿어지고 古代에는 석독구결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한문 訓讀法과 우리의 釋讀法은 기원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구결자료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東洋 諸民族의 文化的인 活動과 맥을 잇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고조되어 금년에는 「東洋 諸民族의 漢字·漢文의 收容과 文字生活의 發達」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國際的인 照明을 하기 위한 學術討論會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매우 기대되는 모임이다.

이제 口訣硏究會는 그 이름을 口訣學會로 바꾸고 새로운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방면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회원들의 열의가 모아져 학술지 「口訣硏究」를 창간하게 된 것이다. 이 「口訣硏究」는 연 2회 정도 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오랫동안의 노력의 결정이 점점 밝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口訣資料叢書」와 함께 이 「口訣硏究」의 창간으로 구결연구의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고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